

‘불수능’ 영어·국어 작년보다 훨씬 어려웠다

만점자 5명…작년比 절반 수준
영어 1등급 절대평가 후 최저
국어·수학 만점자도 대폭 감소
사회 77.3% ‘사탐원’ 변수될 듯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점 결과, 지난해보다 훨씬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나 ‘불수능’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4일 지난달 13일 치러진 수능 체점 결과를 공개했다. 올해 전체 만점자는 재학생 4명, 졸업생 1명 등 총 5명으로 지난해 11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영어와 국어 영역은 ‘불수능’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난도가 높아 수험생들의 입시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수능에서 가장 어려웠던 영역은 영어로 1등급(원점수 90점 이상)을 받은 수험생 비율은 3.11%(4만5천154명)에 그쳤다.

영어가 2018학년도 절대평가로 전환된 이후 1등급 비율은 지난해 (6.22%)의 절반으로 떨어지면서 상위권 학생 간 변별력이 강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표준점수 최고점(만점자 표준점수)을 보면 국어 영역도 상당히 까다로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어 표준점수 최고점은 147점으로 지난해 (1

39점)보다 8점이나 올랐다.

지난 9월 모의평가(143점)와 비교하면 4점 높고 역대급 불수능으로 평가받았던 2024학년도 (150점)보다는 낮다. 독서의 난도가 높았고 일부 문항에서 어려운 지문이 출제됐다.

국어 만점자는 261명으로 지난해 (1천55명)의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수학 영역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139점으로 2025학년도 (140점)에 비해 1점 떨어졌다. 그러나 만점자는 780명으로 지난해 (1천522명)와 비교하면 반토막이 났다.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구분점수(등급 컷)는 국어가 133점으로 지난해보다 2점 올랐고 수학은 128점으로 3점 내려갔다.

탐구 영역의 경우 1등급 구분점수가 사회탐

구 65~68점, 과학탐구 65~68점, 직업탐구 63~68점이다.

사회탐구에서 표준점수 최고점을 보면 세계 지리가 73점으로 가장 높고 정치와 법이 67점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올해 입시에서는 이른바 ‘사탐란’(자연계 학생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로 몰리는 현상)이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수능 사회·과학탐구 영역 지원자 가운데 사회과목을 1개 이상 선택한 학생은 77.3%(41만1천259명)로 지난해 (62.1%)보다 무려 15.2%포인트 (p) 높아졌다.

한편 올해 수능 응시생은 49만3천895명으로 재학생 39만3천102명, 졸업생 등 16만794명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5일 통지된다.

/박선옥 기자

김총리 “민주성지 광주, 미래 산업 메카 도약”

서구-국무총리실 주최 K-국정설명회서
도움 약속…“정신적 고향” 애정 표현도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를 찾아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의 성과와 향후 국정 방향 등을 공유했다. 또 위대한 민주성지 광주가 AI 등 미래 산업 메카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총리는 이날 오후 광주 서구 서빛마루 문예회관에서 열린 ‘K-국정설명회’에 참석해 지역민들과 만났다.

이번 설명회는 서울 광화문을 벗어난 지역에서 열린 첫 번째 국정 설명회로, 강기정 광주시 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양부남·민형배·조인철·정진우·전진숙·박근택 국회의원 및 지역 주민 등 50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김총리는 GDP 실질 성장을 호전과 코스피 4천 돌파를 언급하며 “5천대까지 가는 것을 기대



김민석 국무총리가 4일 광주 남구 빛고을 노인건강타운을 찾아 어르신들과 함께 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김총리는 지난 달 26일에도 광주를 방문해 서구 동천동 일대 골목 상점 등을 둘러봤다.

〈광주·전남사진기자단〉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고 강조했다.

지난 한·미 관세 협상을 두고 “우리에게 불리한 것은 하지 않는다”라는 대원칙과 전략 덕

광주·전남 올해도 ‘더운 가을’

9-11월 평균기온 18도 역대 2위
강수일수도 32.8일로 2위 올라

올가을 광주·전남은 덥고 비도 찾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지방기상청이 발표한 ‘가을철 기후

특성’에 따르면 올해 9-11월 광주·전남의 평균 기온은 18도로 역대 가장 더운 기울에 랭크됐던 지난해보다 0.9도가량 낮으며 2위를 기록했다.

9-10월은 북태평양고기압이 평년보다 서쪽으로 확장해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돼 평년 보다 기온이 높았으나, 11월의 경우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평년 수준이었다는 것이 기상청의 설명이다.

다만 11월부터 서해안 등 일부 지역은 큰 일교

서 바닷물과 대기의 온도 차이로 눈구름대가 유입돼 목포에서 지난해보다 24일 빠르게 첫눈이 관측됐다.

가을철 강수일수 역시 32.8일로 역대 두 번째에 올랐다.

9월은 북서쪽의 차고 건조한 상층 기압골이 자주 남아하면서 강수일수 15.9일(1위)이지만 강수량은 141.7mm로 평년보다 9.8%가량 적었다.

10월 역시 하층에서 저기압이 통과해 강수일

수는 10.4일(3위)이었으며 강수량은 142mm로 평년 대비 11.9% 많은 비가 내렸다.

11월부터는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는 등 기후 변동이 있었다. 강수일수는 65일로 평년보다 11일 적었고, 강수량은 26.4mm로 평년 52.3mm의 절반 수준이었다.

정현숙 광주지방기상청장은 “날씨 변화가 커지고 있는 만큼 본격적으로 한파·대설 등 겨울철 위험기상에 대비해 신속하게 기상정보를 제공하고 방재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서형우 기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왜, 차만손 운동이 필요한가?

1 고령보행자는 접근차량을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건너갈 때는 차만손 해요.

2 운전자는 느린 보행의 고령자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운전자에게 멈추라고 차만손 해요.

3 우리나라 고령자 사고가 아주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고령자 교통안전을 위해 차만손 해요.

4 달리는 차를 향해 손을 들면 대부분이 멈춰요.

그래서, 느린 보행의 고령자는 차만손 해요.

이제, 우리마을 교통안전은

차만손 으로

도로를 건널때
차를 만나면 손을 들어
횡단의사 표시해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 경찰청

전라남도경찰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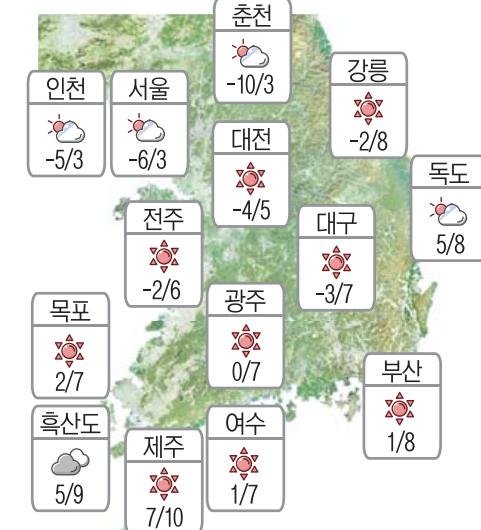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뜨 07:26 해짐 17:20 달뜰 17:18 달짐 07:43

●광주·전남 날씨

광주	맑음	0/7	장성	맑음	-2/6
목포	맑음	2/7	보성	맑음	-2/5
여수	맑음	1/7	함평	맑음	0/7
나주	맑음	-1/6	순천	맑음	-1/7
완도	맑음	2/9	영광	맑음	0/6
구례	맑음	-2/7	진도	맑음	3/8
강진	맑음	1/8	흑산도	구름많음	5/9
해남	맑음	1/8	고흥	맑음	0/9
광양	맑음	0/9	담양	맑음	-2/6

●전국 날씨



●바다 날씨

위치	오전/파고(m)	오후/파고(m)
일반다	1.5~3.0	1.0~2.0
서해	1.5~3.5	1.5~2.5
남부	1.5~3.0	1.5~2.5
남해	1.0~2.0	0.5~1.5
서부	1.5~2.5	1.0~2.0

●물때

지역	만조	간조	만조	간조	만조	간조
01:33	07:00	09:14	02:32	09:56	03:30	
목포	14:27	19:47	21:17	15:18	21:53	16:32

●생활정보지수

나들이 40	세 차 40
감기 조심해요	차 내부정돈이 좋아요
빨래 40	운동 40
실내건조 좋아요	실내운동 즐겨요

●주간 날씨

6일(토)	7일(일)	8일(월)
구름조금	구름조금	맑음
9일(화)	10일(수)	11일(목)
맑음	맑음	맑음
(0/9)	(1/11)	(3/13)

▶날씨안내: 국번없이 131